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17호

발행일 : 2017. 9 . 3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ALWAYS
Joyful ♥
항상 기뻐하라
수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이네 성경가운 말씀 살전 5:16-18



모든 것을 내려 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민이삭 권찰 간증 내용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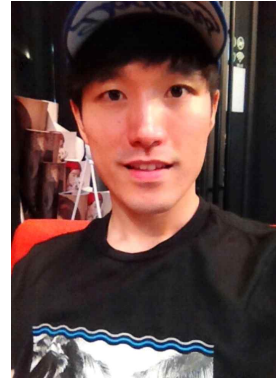
<이달의 신앙 간증>

-민이삭 권찰-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을 처음 뵈을 때는 대학생이었지만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들 이룸이의 아빠가 된 민이삭 권찰입니다.

간증을 쓰기에 앞서 먼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에게 이런 귀하고 값진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솔직히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제가 많이 부족하기에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 간증이라 하면 '왜 그런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불치병에 걸렸지만



치유해 주셔서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거나, 사업이 풀딱 망했었는데 전보다 더 부하게 해 주셨다거나 등 앞에 열거했던 사건들처럼 드라마틱 하거나 누구보다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분들이나 간증거리가 있지 나처럼 밋밋하고 평범한 삶에서 간증이라고 할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의 짧디 짧은 인생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무뎌져서 느끼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경험 중 두 가지의 사건을 성도님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는 결혼하고 약 한달 반 뒤인 2015년 12월 말쯤에 일인데요. 눈이 많이 온 토요일 출근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미끄러져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가더니 바깥쪽 벽을 박고, 안쪽 중앙선 가드레일을 박고 섰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 안에서는 에어백이 터져 에어백 연기가 나고, 밖에서도 차가 어떻게 됐는지 보닛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겁나서 얼른 문 열고 나와 바깥쪽 벽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 차가 오지 않아 2차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었지, 사고당시에 저는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당진에서 서산가는 길은 왕복4차선이라 대형차들도 뽕뽕 달리는 곳이거든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네요.' 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곤 이내 제 손은 전도사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매번 연락드려 상담 받곤 했거든요.

차는 폐차시키고 저는 며칠 입원하고 무사히 퇴원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의 출생입니다. TV나 영화의 폐해 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쉽게 임신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에게 제약이 있긴 했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련했었죠. 지금에서야 돌이켜 보면 결혼하고 난 뒤로 줄곧 기도는 하였지만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자궁 외 임신이란 큰 아픔을 겪은 뒤에야 정신 차리고 둘이 같이 성전에 올라 전심으로 기도했고, 소현 권찰이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이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철야 기도회도 나가고 중보기도 요청도 하였습니다. 새벽기도도 특별새벽기도회 때만이라도 꼭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끝내는 이번에도 자연임신이 안되면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의사 선생님께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지저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연임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아이를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단 적인 예로 임신테스트기를 족히 100개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은 돈 주고도 못살 귀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다시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 매일 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언제나 마음 놓고 부르고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일년 365일 24시간 내내 보고 계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밖에는 답이 없으며 내가 힘쓴다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으니 바로 바짝 옆드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는 엄연히 다르며 가장 적절할 때 주님이 해결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서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며 끝내는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자 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 확실한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굳게 믿으며, 기도만이 답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진부하고 모범 답 같은 저의 생각이었지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듯이 절대불변의 사실과도 같은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 늘 평안하시길 기도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둘째 임신으로도
힘드시텐데 민준이와
매 예배때마다 성전에
오시는 모습이



정말 예뻐니다.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하길 바라며,
건강한 출산하길 또한
중보 기도 합니다.



성도 알아가기

-조은혜 성도-

1.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27살이구요. 한 아이를 키우고 지금은 둘째를 임신 중에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2. 남편과의 러브스토리 들려주세요~

대학 1학년 때 엠티를 갔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알게 되었구요. 그 당시 남편은 복학생이었는데 어쩌다보니 우리는 CC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늘 수업을 같이 들었고 저를 항상 집까지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곤 했지요. 그렇게 6년 연애했다 결혼했어요 .

3. 학창시절 성도님은 어떤 학생이었고 그 시절 행복하였나요? 회상해주세요.

중학교 때는 그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러다녔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놀기도 매우 좋아하는 당차고 독심 있는 학생이었다고나 할까요???

4. 문제없는 부부는 거의 없지요. 남편과 성도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시댁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지요. 기도중입니다.

5. 민준이는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지요? 민준이가 어떤 어린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엄마가 원하는 민준이의 장래를 스케치해 주세요.

건강하고 예의 바르고 주님 잘 믿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또 주님 잘 믿는 배우자 만나 믿음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6. 내게 지금 20억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일단 가장 먼저 십일조를 드릴거구요. 친정집을 새로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댁 빚도 다 갚아 드릴거구요. 언니인 조은희 권철님 차를 언니에게 딱 잘 어울리고 안전한 새 차로 바꿔주고 싶어요. 로또 맞으면 차 사주기로 약속 했었거든요. ㅎㅎㅎ

7. 나만의 독특한 요리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레시피 공개해 주세요.

요리를 별로 잘 안 해 먹어서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8. 시부모님께서 매우 잘 해 주시는 걸로 소문나 있어요. 사랑받는 며느리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잘하는 것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워낙에 성품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거기다 민준이를 생각하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 받은 사랑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을 생각이예요.^^

9.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는 축복을 부어 주신다면 무슨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물질 축복도 좋지만 건강 축복을 받고 싶어요. 민준이가 자주 아파서 그런지 아이들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아프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10. 성도님만 아시는 언니 조은희 권철님과 형부 이진영 권철님의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언니가 전에는 성격이 이기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더니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지요. 저를 많이 배려해 주고, 마음도 아주 넓어졌어요. 그리고 형부는요~ 매우 피곤한 몸 상태라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가정보다는 교회가 우선인 거 같아요.

11. 해외 여행티켓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장소도 미정이고 파트너도 미정이에요. 누구와 어디를 가시겠어요?

가족들과 께요. ㅎㅎ 께은 휴양지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냥 푹 쉬다 오고 싶어요.

12. 자신의 성격을 들여다 볼 때에 성경 속에 닮은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성경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닮고 싶은 분은 예수님 입니다

13. 장래에 성도님께서 구역장이 된다면 어떤 모습의 구역장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그런 생각 안해봤고요. 구역장 사역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14.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성도님들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은 어떤 유익을 끼치는 성도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성도로 살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15. 남편이 아직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있군요. 주변 가족들이 구원의 때가 더 더지는 것은 내가 변화되지 못함이 그 이유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성격이요. 저는 다혈질적이고 하고 싶은 말을 담아두지 못해요. 그냥 해 부쳐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화나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 지금 언니인 조은희 권찰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데요. 성도님께서는 혹시 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일이 아니라면 혹시 다른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 하고 싶으신가요?

교사는 생각해 보지 않았구요. 전에 피아노를 배우다 그만 둔 일이 후회되요. 계속 배웠으면 피아노 반주 봉사를 했을텐데요. 아직 교회에서 무슨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찾아볼게요.

17. 한번쯤 고민 해 보았을 것 같은 질문 드릴게요. 바다에 민준이와 남편과 부모님이 빠졌어요. 작은 배가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우시겠어요?

민준이요. 남편은 수영을 잘하니까 부모님 탈 없이 모시고 나올걸요~~~

18. 8월의 표어는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라’ 입니다. 지금 성도님께 하나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민지 않는 남편과 살다보니 십일조에 있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웃으십시오!



몇 년째 마른 장마라서 먼지만 폴폴 날리더니 장맛비로 끈적이고 구적거림이 많았던 여름을 오랜만에 보내었지요? 굿은 날씨에도 건강하신 성도님들을 뵈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화사하게 때로는 은은하게 예쁜 꽃으로 예배 드리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전 꽃 장식입니다.

언제나 꽃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한껏 웃음을 터트려 주는 **장미라 집사님**을 통하여 기쁨이 온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이지요. 이뿐 아니라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고 찬양대에서도 주님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 드리는 달란트가 참으로 많으신 분이십니다. 집사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예쁜 꽃처럼 주변을 기쁘게 밝게 감동 주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릴레이

(김정애 집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나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나의 심장과도 같은 아픈 손가락인 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품에 품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릴레이 하실분:김남현 집사

우리 구역 최고!!

-평강 구역-



처음 구역장이란 직책을 맡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을 달려 왔습니다. 부족한 구역장을 협력하여 지금까지 신앙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해 주신 구역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평강구역은 지금도 청년들에게 오빠라 불리고 싶어하는 아이 셋을 둔 유종호 성도님과 최근 기도와 눈물에 열매로 이름이 아빠가 된 민이삭 권찬님, 또 새 생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박두식 성도님, 둘째 자녀 계획을 고민 중에 있는 구역장 이진영 권찬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모두 젊고 패기 있는 젊은 아빠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우리 평강구역이 모여 의씨의씨 하면 못할 일을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파워 있고 못 할 것 없을 것만 같은 우리 구역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구역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구역식구들은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 한끼 먹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각자의 근무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 보니 시간들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시간들이 딱 맞아서 같이 저녁식사 자리를 갖았었는데 그때가 너무 즐겁고 서로 간에 유익과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2017년 올 한해동안 각자 성경 1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인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4개월 구역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뛰는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이태권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하은이에요.

성경학교 MVP대표로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써 주신 편지 잘 읽었어요.

성경 학교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 하셨다고요?

이번 성경 학교때 처음 나왔던 몇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앞으로 계속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속상해요.T.T

저도 사실은 너무 어릴 때라 기억나지는 않지만 엄마께서 오늘 이야기 해주신데 2012년7월27일.. 저는 6살 언니는 7살 때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모 되시는 송미정 집사님께서 저희를 샅별유치부에 데리고 가셨대요.

엄마께서 김소현 선생님 카카오톡스토리에 저희 유치부때 사진을 찾아서 보여 주셨어요.

거기에 다희, 미경이, 진욱이, 산지, 순관오빠 등 다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렸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참 많이 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커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주일날 앞에 나가서 준비찬양도 부르고 싶어요. 기타치며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정말정말 짱!!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감사한게 너무 너무 많아요.

먼저 선생님께서는 우리한테 잘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는게 정말 좋아요.

헌신예배 준비 중 연극 연습 할 때도 “잘했어. 아주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면 기분도 너무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오늘은

이성재 선생님과 처음으로 찬양연습 하고 온 날이에요. 선생님은 역시 잘 안되었는데도 칭찬해 주셨어요. 더 연습 많이 해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하은이가 될게요.

선생님 생각나요?

소예배실에서 다희와 함께 찬양했었는데.. 저는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셋이 함께 찬양 부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기타 연주에 맞추어 힘차게 찬양 부르니 더 즐거웠어요.

여러 가지가 저에게는 정말 최고였어요^^ 선생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편찮으실때도 기도 해 드릴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은 올림

2017년 여름 성경 학교 바통터치(복음 전달자)



또 네가 많은 중의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2장8절-



어린이 헌신예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 받은 아이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굳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편 115편 11-15절 말씀

성경 숨은그림찾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7)
[숨은그림 : 바나나, 당근, 십자가, 남자 구두, 장도리]

*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 essay.112 -



* 우리를 넘어 뜨리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다!

하루의 불행은 모두...

나 :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그래, 말해보거라.

나 :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주님: 그래, 화내지 아니하마.

나 : 왜 오늘 저에겐 힘든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셨나요..

주님: 더 말해보거라.

나 :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래.

나 : 그것은 시작의 불가합니다..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랬구나.

나 : 바쁜 와중에 점심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점원의 실수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 그래..

나 :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잡혀 전화가 먹통이 되지 몹니까..

주님: 그랬구나..

나 : 결국 지친 몸을 달래며 집에 도착한 저는 어제 막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새 의자도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저에게 이러신 것입니까??

주님: 그래, 내 말을 들어보거라.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네 머리맡에
있더라.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 싸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것이니라..

나 : 오..

주님: 네 차의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쳐 갔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자 때문이니라.

나 : ...

주님: 편안했어야 할 너의 점심 시간에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있었다.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단다.

나 : 네...

주님: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 된 정보를 주려했기 때문이니라.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다.

나 : (경건히) 주여...

주님: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는.. 네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 하였기에 내가 그리했노라. 나는 네가 어둠 속에서 헤매길 바라지 않았단다.

나 :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나 : 예 믿겠습니다. 주님!

주님: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네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리라.

나 :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오늘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감사>

개그맨 이동우씨는 결혼을 하고 100일쯤 지난 뒤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쁜
마음으로 한걸음에 달려갔지만 동우씨는 눈을 기증 받지 않고 돌아왔다.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이미 받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
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다. 사지를 못 쓰는 오직 성한 곳은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동우씨가 말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아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 있는
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글입니다.

아침에 눈 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의지대로 걸을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은 남과 나눌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마음 기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오늘은 미운 사람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겸손>

자아가 죽은 사람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확실한 증표는 겸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겸손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겸손한 가정이 수준 높은 가정입니다. 겸손한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겸손한 사회가 수준 높은 사회입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가 수준 높으며 깨끗하고 평안하여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자아(自我)가 죽어야만 합니다.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사랑 등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박아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참다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고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비겁해지기 쉽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에는 참다운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봉사와 헌신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으로는 영안(靈眼)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에 사랑을

모든 인간은 본연적으로 지식을 추구한다(전도서 1:13).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분명히 말하건대, 자기 자신에 대해 소홀하고 단지 천기의 운행만을 파악하고자 애쓰는 교만한 철학자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훨씬 낫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는 스스로 겸손해지며, 사람들의 칭찬을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행위에 따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날 도와줄 것이 그 무엇이겠는가?

<성경 인물 소개>

아브라함

뜻 : 열국의 아버지

부친은 데라, 아우는 나홀과 하란이다.(창11:26).

구명 아브람을 여호와가 아브라함이라 고쳐 주었다(창17:5).

노아의 12대 손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하였다.

얼마 후 메소보다미아 하란에 이거하는 중에 부친상을 당하고 여호와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크게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창12:). 흉년으로 인하여 잠시 애굽에 가 있는 중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다(창12:13).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노복과 우양이 많으므로 롯이 거주하는 지방에 전쟁이 일어나 롯이 포로 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 롯과 재물을 찾아 가지고 오는 중에 살렘왕이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니 이것이 십일조의 규례가 되었다(창14:9-20).

그 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번창할 것과 애굽에서 4백년간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다(창13:16, 15:5, 22:17, 15:13). 사라가 생산치 못하여 그의 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니 이 사람이 아라비아인의 시조요 회교의 교조 모하멧의 시조이다.

사라의 생산할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 그리고 할례법을 창설 하였다(창17:8-10,19).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소돔 멸망에서부터 롯을 구하였다(창18:1-8,20:32). 백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창21:1,14).



<이단 특집>

구원파

세월호 사건 당시 세간의 집중을 많이 받았던 구원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원파는 개신교 계열의 3개 교단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 3개 교단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기쁜소식선교회, 생명의말씀선교회 입니다. 이 3개 분파는 주류 개신교와 교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며 현재 주류 개신교로부터 모두 이단으로 규정받고 있다고 하네요.

구 원 파			
분류	권신찬 (유병언)	이요한	박옥수
교단명칭	기독교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침례회	
유관기관		생명의말씀 선교회	기쁜소식선교회 국제청소년연합 (IYF)
본부격 교회	서울 삼각지 서울교회	경기도 안양 서울중앙교회	기쁜소식강남교회
오류	구원받은 후의 회개 부인, 영에는 죄가 없고 육에만 죄가 있다는 인죄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는 구원론,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 알레고리(풍유)적 성경해석 등		

이 중에 기독교복음침례회가 바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교단인데요.

권신찬-유병언 계열의 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 후반에 발생했던 오대양 집단 자살사건이 바로 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교주였던 박순자가 이 권신찬계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신도였던 것이죠. 유병언은 권신찬의 사위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구원파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연계된 기업 중에 세월호 소유 회사인 청해진해운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파는 청해진해운 외에 세모, 온나라, 다판다 등의 약 70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사용어 Briefing

쇠그랜 증후군

입이 심하게 마르고 눈이 뻑뻑한 증상을 보이는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성 전신 질환이다. 면역 체계가 타액선, 눈물샘을 공격해 만성 염증이 생겨 분비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안구와 구강 등 점막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침샘 분비가 저하되면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잇몸 염증이나 충치가 쉽게 생긴다. 말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침샘이 부어 통증과 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아 눈이 뻑뻑해지고 모래가 낀 듯 이물감이 느껴지며 쉽게 충혈되고 피로 해 진다.

초고화질 방송

UHD 방송은 HD TV보다 4배 이상의 선명한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방송 기술이다. UHD 방송은 실제로 눈앞에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7월 현재 지상파 UHD를 시청하려면 북미식 기술이 도입된 UHD TV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UHD 방송 표준 방식은 2016년 7월 말에야 북미식으로 결정됐고, 해당 기술이 적용된 UHD TV는 올해 초 국내에 출시됐다.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된 유럽식 UHD TV를 산 소비자들은 전송 방식을 변경해주는 셋톱박스를 따로 사야 하는 실정이다.

안아키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수 6만명이 넘는 ‘안아키’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들은 약물 오남용 문제를 막고 아이의 자연 치유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 약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가정 요법을 실천한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에게 스킨과 로션을 전혀 바르지 않기. 비강 세척, 숯가루나 능소화 같은 자연식품 먹이기 등의 치료법들도 그중 하나다. 독소를 포함하지 않은 안전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홍역이나 수두 등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극단적이 안아키 치료법도 공유되고 있다. 이는 아동 학대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issue>

먹거리가 위협 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로 인해 많은 조류들이 매장 되어 죽어 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또다시 우리의 식탁위에 화두로 올라 온 것은 다름 아닌 달걀이다. AI파동으로 닭의 가격은 물론 달걀의 가격 또한 많이 올라 가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외국에서 달걀을 수입해 오는 지경에 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살충제 달걀에 관해서 방송했다. 전 국민이 완전식품으로 알고 열심히 섭취 하던 달걀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다니 국민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또한 당연한 반응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서 다른 유해 물질이라고 해도 좋아라 하지 않겠지만 살충제라고 하니 더욱 민감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정부에서 이에 모든 양계 농가를 조사하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달걀들은 출하를 시작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달걀은 수급을 위해 각 판로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지만 예전만큼 수요가 좋지 않다.

달걀의 표면의 표기법과 의미를 알아 두자.



예쁜 우리 말 보음

1. 가시버시 : 각시 신랑을 이르는 말
2. 고스러지다 : 벼, 보리 등이 벨 때가 지나서 이삭이 구부러져 앙상하게 되다
3. 고운매 : 아름다운 맴시나 모양. 또는 아름다운 여인
4. 고주리미주리 : 아주 잘고 소소한 데까지 죄다 드러내는 모양.
고주알미주알
5. 곧추 : 굽히거나 구부리지 않고 곧게
6. 곧추다 : 굽은 것을 곧게 하다
7. 곧추뜨다 : ①아래 위가 곧게 뜨다 ②눈을 부릅뜨다
8. 골무 :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는 것
9. 곰방대 : 짧은 담배대
10. 곰삭다 : 옷 같은 것이 오래 되어서 울이 삭고 품질이 약해지다
11. 곰살궂다 : 성질이 부드럽고 다정스럽다
12. 곰새기다 : ①되풀이해 곰곰 생각하다 ②곡해하다 ③고깝게 여기다
13. 괴괴하다 : 쓸쓸할 정도로 아주 고요하고 잠잠하다
14. 군입정 : 때 없이 음식으로 입을 다시는 일
15. 기스락 : 초가의 쳐마 골
16. 길라잡이 : 길을 인도하는 사람(줄임말 : 길잡이)
17. 길섶 : 길의 가장자리
18. 꺾쇠 : 잇댄 두 나무가 벌지 않도록 두 나무 사이에 박는
'ㄷ' 자 모양의 쇠토막
19. 나풀나풀 : 가볍고 날렵하게 움직이는 모양 또는 잇따라 가볍게
나부끼는 모양
20. 냇내 : 연기의 냄새. 음식에 뱀 연기의 냄새

<이달의 제철음식>

그동안 더위에 많이들 지치셨죠?

9월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9월의 제철 음식들로 여름 동안 힘들고 지치셨던 분들 원기보충 좀 하세요^^

그럼 9월 제철음식에 대해 알아보까요?

1. 대하

대하는 성장 발육과 피부미용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함유된
키토산은 지방의 침착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불순물의 배출을
촉진시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구워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는 대하~~!!!



2. 참나물

베타카로티이 풍부한 참나물은 특유의 향이 있는 산채나
물로 열량이 낮아 비만 방지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되는 베타카로틴이 높아 안구 건조증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참나물을 녹즙으로 마시면 눈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 환우분들은 칼륨 제거 안하고 드시면 안 되는거 아니죠?



3. 은행

은행은 기름에 달달 볶아도 먹고 또 고치에 끼워서
은행고치로도 많이들 드시는 음식이에요.

은행에는 장코플라톤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전을 없애 혈액의 노화를 막아주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 꾸준히 몇알씩
드시면 좋겠네요.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부작용이 있으니 꼭 정해진 양 내에서 섭취하세요^^



4. 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 제일먼저 떠올르는 과일이
바로 배죠~

달콤 시원한 맛이 일품인 배에 많이 들어 있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
고 수분 부족으로 변비가 생겼을 때 변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갈치 전어 전복 꽃게 고구마 옥수수 등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도 먹거리 풍년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 이달의 교회소식

1. 헌신예배 / 중직자 - 9월 3일
집사1회 - 9월 17일
2. 특별새벽기도회 / 9월 4일~8일
소예배실

◎ 공지사항

1. 9월 생활실천표어 /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 이달의 교우소식

1. 교단사역 / 한승권목사 - 9월 11일~15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